

“첫 차에 실은 새해 소망…건강한 한 해 되길”

2026 병오년 송암 31번 첫 버스 탑승기

오전 5시40분 차고지 출발…‘출근·일출’ 시민 발길
털모자·장갑 중무장…자격증 취득·경기회복 소망도

“희망찬 마음가짐을 갖고 새해 첫 시내 버스를 탔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5시40분, 광주 남구 송암동 을로운수 차고지에서 2026년 첫 시내버스가 출발했다. 남구 송암공단에서 서구 천교로 향하는 송암 31번 노선이다.

버스기사 강재희씨(41)는 교통카드단말기와 바퀴 등 차량 내외부 점검을 마친 뒤 조심스레 첫 운행에 나섰다.

이날 첫 승객은 광주송정역으로 향하던 직장인 조수빈씨(26)였다.

조씨는 “광주송정역으로 가기 위해 첫 차를 탔다. 친구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서

을에서 보내려고 한다”며 “오랜만에 이른 아침 버스를 탔는데 첫 승객이라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새해 소망을 묻자 “지난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녔다”며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고지를 출발한 지 10여분 만에 백운광장과 주월초교 정류소에서 승객들이 잇따라 탑승했다.

공휴일이었지만 해가 뜨기 전부터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탑승객 대다수는 두꺼운 외투에 털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채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운암동에서 6년째 회계 업무를 하고 있



버스기사 강재희씨(41)는 “새해 첫 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에 오전 3시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며 “지난해 별다른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낸 것처럼 2026년에도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밤이 되겠다”고 말했다.

는 60대 여성 오모씨(진월동)는 “매일 첫 차를 타지만 새해 첫 차는 유난히 새롭다”며 “자영업과 건설업 등 전반적인 매출 하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모두가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씨(25)는 “올해는 경기가 회복돼 생계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며 “자격증 취득과 대외활동을 통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가족은 버스에 올라 일출 이야기를 나누며 새해 분위기를 즐겼다.

박모씨(36·서구 화정동)는 “매년 무등산 장불제에서 해맞이를 했지만 올해는 버스를 이용했다”며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과 돌고개역을 지나며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자 버스는 점차 한산해졌다.

오전 6시30분 종점인 천교에 도착한 버스는 10분 뒤 다시 송암동 차고지 방향으로 순환 운행에 들어갔다.

버스기사 강재희씨는 “새해 첫 차 운행을 위해 오전 3시30분에 출근 준비를 했다”며 “첫차 승객 대부분이 출근길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처럼 2026년에도 사고 없는 안전운행으로 시민의 밤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무안공항서 신년 해돋이 행사
제주항공 유기족협의회 진행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무안공항에서 병오년 해돋이·떡국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1일 오전 7시30분 무안공항에서 해돋이·떡국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추모행사는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유가족 위로와 응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에서 함께 해돋이를 바라보며 2026년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올비를 진상규명을 소망했다. 또 떡국을 나눠 먹으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사랑의 떡국 나눔 광주시 서구 새마을회(회장 배창숙)는 1일 금당산 인공폭포 광장 일대에서 2026 병오년(丙午年) 금당산 해맞이 떡국 나눔행사에 참여한 시민 2000여명에게 떡국 및 차를 나눠주고 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 추진

목포공고·해남공고 설명회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설명회를 갖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의 AI산업 특화 학제(빅테크 기업 입주 및 인프라 조성)에 따라 두 학교의 성공적인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을 지원하고, 배움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포공업고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운영했다.

해남공업고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혁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협소한 광주 동구 골목길, 주민 요구로 열렸다

지산동 일방통행 전환·횡단보도 신설 등 5건 통과
차량 정체·무단횡단 민원 반영…1~2월 공사 추진

광주 동구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 골목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본보 2025년 7월16일자 5면 참조)

1일 동구와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5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차량 통행체계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간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건들을 심의해 총 5 건을 의결했다. 심의에는 동부경찰과 동

일방통행 전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에 조치가 이뤄졌다.

운립동 981번지 일원 중심가길 30번길(중심사상 구간)은 수년 전부터 사실상 일방통행으로 운영돼 왔으나, 공식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심의를 통해 명문화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블로동 79번지부터 황금동 88번지까지 ‘웨딩의 거리’와 중심전로 80~2번지 이화주택 앞에

는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다. 두 곳 모두 무단횡단이 잦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접수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정차 금지구간 조정도 이뤄진다. 동구 월남동 345~3번지 칠전마을 입구 일원은 과거 도로 재정비 과정에서 양방향 모두 황색 실선이 도색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주민들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며, 동구는 심의를 거쳐 중앙선 위치를 조정한 뒤 한쪽 차로를 주·정차가 가능한 백색 실선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동구는 1~2월 중 노면 표시 교체와 횡단보도 설치 등 현장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교통영향 평가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심의 안건을 상정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새해 달리지는 시법제도

‘해결·조정’ 중심 방향 전환

형사공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가정폭력 ‘보호·분리’ 방점

2026년에는 사법 절차가 크게 바뀐다. 재판은 더 빨라지고, 과정은 더 투명해지며, 법원 문턱은 낮아져 지역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사법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다. 참여재판은 유지하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배심원 평결의 무게가 한층 커진다.

판사가 배심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

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관행이 강화된다. 시민 판단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참여만 하는 재판’이라는 비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형사공탁 제도 역시 엄격해진다. 그동안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맡기고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됐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를 주제로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 ‘기습 공탁’과 ‘대립 반성문’ 등 양형 기준 약용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후 양형위원회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경우에만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탁의 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질성, 피해자 수용 여부 등

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구조는 사라질 전망이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처벌 이전에 분리와 보호에 방점을 찍힌다. 접근금지 명령과 보호조치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 적용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적용된다. 형사 재판부와 기사 재판부 간 정보 연계도 강화돼, 반복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소년사법 분야에서는 낙인 최소화 원칙

이 더욱 분명해진다. 보호처분 중심 사건은 성인 전과와 명확히 분리 관리되고, 소년 전담 판사·조사관 체계가 인정화된다. 처벌보다는 교육과 회복을 통해 재범을 막겠다는 기조가 제도 전반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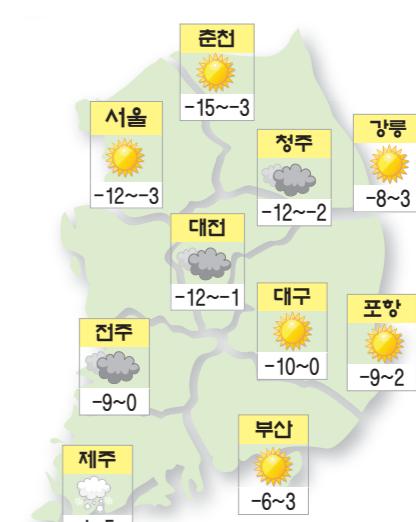
민사·가사 분야에서는 조정과 중재가 ‘기본 경로’로 자리 잡는다. 소액 분쟁이나 생활형 갈등은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상당수 사건은 법정 다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판 절차를 줄이는 동시에, 당사자 간 갈등을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전자소송과 비대면 재판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된다. 기록 열람·송달·기일 통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일부 사건은 화상 기일이 상시 운영된다. 다만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보완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판결문 공개 방식 역시 변화한다. 주요

오늘의 날씨

해물 07:41 일출 15:59
해금 17:32 일몰 06:29



광주	雨	-6~-1
목포	雨	-5~-2
여수	晴	-6~-2
순천	晴	-7~-1
구례	雨	-12~-4
광주	雨	-6~-2
함평	雨	-5~-3
목포	雨	-2~-4
여수	晴	-7~-3
진도	雨	-4~-2

“주차 문제로” 주민 몸싸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한 칸을 둘러싼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져.

1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시비를 건다”는 다급한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

당시 A씨(31·여)가 주차후 물건을 내리던 찰나, B씨(51)가 등장해 “여기 주차하면 안 된다”고 나섰다고.

이후 평온했던 아파트 주차장은 순식간에 고성 오가는 야간 공개 토론장으로 변해.

주차 규칙을 두고 벌이던 말싸움은 A씨가 B씨를 밀치면서 몸싸움으로 변질.

B씨 역시 이에 질세라 맨손으로 두 차례 밀며 응수.

소동은 결국 A씨의 신고로 마무리됐고, ‘주차 단속’은 주민 손을 떠나 경찰 뒷으로 넘어가.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확인돼,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웃끼리 벌어진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